

DMZ on the WEB

interview with webproject team "Node" _ October 2001

Node: DMZ는 역사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생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작업에서 DMZ라는 공간에 접근하는 관점은 무엇인지 짚막하게 부탁드립니다.

Ryu: DMZ는 현재 폐기된 20세기 거대 이데올로기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드러내는 지역입니다. 본인은 6.25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세대로 분단상황을 상징하는 DMZ 공간은 아이러니합니다. 한때 세계 강대국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난투장이었던 한반도는 전후(戰後) 그들의 정치적 욕망의 실패와 그로 인한 아쉬움의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DMZ를 마치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루지 못한 미련의 감정을 대신하여, 헤어지는 연인의 가슴에 자신의 흔적을 문신으로 새겼던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5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반도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있으며, 이 상처는 오늘날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서로 나누지 못하는 남북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은 DMZ공간을 실패한 20세기 거대 이데올로기의 '미련과 상처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접근합니다.

Node: 주제장(기억,접촉,치유)을 나눠서 작품을 창작하실텐데 작업하고 있는 주제장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나요?

Ryu: DMZ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저에게 이 곳은 나른하고 고요한 장소로 기억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고 고요한 정적(靜的)만이 있는 풍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DMZ는 20세기 세계 거대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나고 남은 폐기된 이데올로기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현재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있는 공간이며, 상대에게 말을 건네도 반응하지 않는 서로에 대해 예민하게 작용하는 민감한 공간입니다. 본인은 DMZ공간을 무언(無言)의 벽에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위협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장소'로 인식합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저는 낡은 이데올로기의 유행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Node: 웹의 특성은 공공성, 미디어의 통합성, 상호작용성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웹 아티스트로서 주목하는 웹의 특성은 어떤 것이고 또, 미디어로서 웹의 '기술'중 무엇이 주요하다고 보십니까?

Ryu: 근대이후로 미디어에 대한 예술가들의 미디어 활용방법인 전위적인 실험이 현재 일부 웹(WEB)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이 진행중인 웹의 특성 중 제가 관심을 갖는 점은 '이미지 소통방식'입니다. 미디어로서 웹이 다른 미디어와 차별성을 지니며 성숙해갈 것이라 여깁니다. 이는 기존 미디어(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등)에 보여진 이미지 소통방식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이미지 소통에 대한 웹의 가장 큰 특성은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기술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ode: 웹에서도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웹과 예술적인 것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미디어로서 웹의 예술적 표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Ryu: 웹과 예술적인 것의 관계는 웹이 어떻게 예술적인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웹이 예술적 성향을 취하려면, 웹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른 매체와 차별적인 방식으로 웹이 지니는 고유특성을 활용하여 작업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웹 미디어를 다루며 활용하는데 웹이 지닌 이데올로기와 테크놀로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고유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로서 웹의 예술적 표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은 지금 논의하기에 이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진행중인 미디어에 대한 예술작업의 표현 한계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게 단정하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